

이달의 시사 논술

‘이달의 시사 논술’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달의 시사이슈를 소개하고, 이슈에 관한 논술문제와 관련교과, 참고서적, 지도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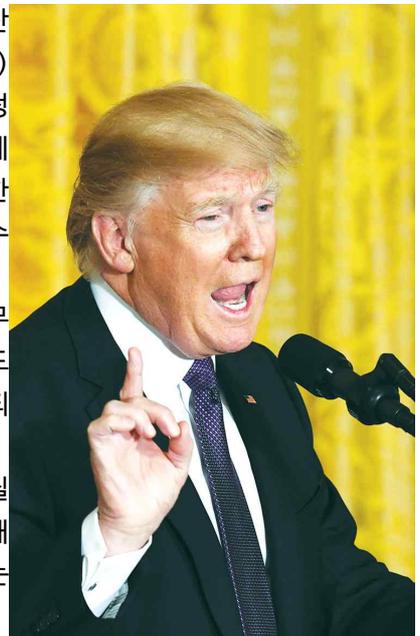
트럼프의 보호무역,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의 행보에 전 세계가 ‘들썩’

올 초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무역정책)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보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TPP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에 관세(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를 낮춰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고 약속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TPP를 탈퇴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수입하는 외국산 물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해 무역 이익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에 이어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에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에 나설 태세다.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는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는 약간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NAFTA 재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보에 국내외에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세계무역질서는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해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지 그 의 행보가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스시스

미국 보호무역, “무역 적자 극복하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행하는 보호무역의 핵심은 결국 외국산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즉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기존의 국가간 무역 질서를 역행하면서까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한다. 자국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을 사들이는 것. 이를 각각 수출, 수입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무역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5022억 달러(한화 약 573조원). 이는 최근 4년 중 최고치다.

자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많이 팔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적게 사들이야 국가간 무역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많은 돈을 외국에 내보내고 있는 상황. 수입 의존도를 줄여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수입한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

므로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 자연스레 수입을 줄일 수 있기 때문. 결국 관세를 높여 미국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무역구조로 전환해 국가간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늘리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이다.

멕시코, 중국 등이 가장 큰 영향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이런 보호무역 행보를 보이자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에 의존해 경제정책을 펼치던 국가들이 적지 않다.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 자국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주목하는 것. 세계 각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 한 국가의 경제 정책 변화가 다른 국가로,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전체가 요동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로 멕시코를 꼽는다. 그동안 멕시코는 NAFTA가입국으로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의 수출이 쉬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NA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잘못된 협약”이라고 비난하면서 멕시코산 제품에 35%의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던 멕시코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셈.

중국도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전체 수출량 중 20%가 미국으로의 수출일 정도로 중국에게 미국은 큰 시장이다. 이에 따라 관세가 많이 부과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중국 수출품에도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 직간접적 타격 예상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우리나라는 TPP나 NAFTA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협정을 줄줄이 탈퇴하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면 이 여파가 한미 FTA 재협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TPP, NAFTA, 한미 FTA를 묶어 ‘일자리를 빼앗는 협상’이라고 비판해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2017년 이후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이 269억 달러(한화 약 31조 원) 줄고, 일자리도 24만개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중국 및 멕시코의 미국 수출량이 줄어들 경우,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과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선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최근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 투자 질서’라는 보고서에는 “중국과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역시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담겼다.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생각해볼 문제

1. 현재 트럼프가 내세우는 주요 경제 정책을 조사해보자.
2. 대외 무역 정책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으로 나뉜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정의와 장단점을 정리해보자.
2. 트럼프가 왜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② XII. 국제 경제와 세계화

사회② XIII.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참고자료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36회, 2017년 1월 21일 자, 2017 트럼프 시대 열리다
EBS 세계의 눈, 2016년 11월 10일 자, 2016 미국의 선택-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안세영 저

지도법

학생들이 세계경제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들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교사는 가장 먼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의미와 그 영향을 파악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때 적절한 비유를 들어 학생 수준의 언어로 바꾸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학생들이 자유주의와 보호무역의 장단점을 교과서와 인터넷 검색, 관련 도서 등을 참조해 조사해보도록 유도한 뒤 한 번 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트럼프가 내세운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세계경제 흐름에 대비해 우리는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도 깊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유순준 대전삼천중 사회 선생님